

퍼트남의 통 속의 뇌 논증에 대한 비판*

박제철**

주제분류 형이상학, 인식론, 언어철학

주요어 퍼트남, 통 속의 뇌 논증, 회의주의, 실재, 현상, 믿음체계

요약문

본 논문에서 필자는 퍼트남의 “통 속의 뇌 논증”이 잘못된 논증임을 보이고자 한다. 핵심은 실제세계, 표상세계, 우리의 믿음체계, 이 셋의 구분이다. 퍼트남은 표상세계에 대해 얻어낸 결론을 실제세계에 적용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한 오류로 인해 퍼트남은 회의주의를 극복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최종 결론이다.

* 이 논문을 읽고 논평을 해 주신 이병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병덕 선생님의 논평 덕분에 논문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었다.

** 서울시립대학교(University of Seoul), 의사소통 센터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퍼트남의 “통 속의 뇌 논증”이 잘못된 논증임을 보이는 것이다. 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은 필연적으로 거짓일 수 있지만, 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스토리는 일관적일 수 있다. 둘째, “통 속의 뇌 가설”은 전지적 시점과 1인칭 시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퍼트남이 전체 가설을 설명하기 시작할 때, 그는 전지적 시점을 취한다. 그 다음, 그는 곧바로 1인칭 시점을 취해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이 필연적으로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퍼트남은 부당하게도 다시 전지적 시점을 확보해,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이 표상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세계에서도 필연적으로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퍼트남은 시점을 전환해, 표상세계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부당하게도 실제세계에 적용시키고 있다. 셋째,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은 표상세계에 대해 필연적으로 거짓인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세계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거짓인지는 증명되지 않는다. 우리가 전지적 시점을 취하면,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통 속의 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1인칭 시점만을 취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통 속의 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을 뿐이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실제세계에서 통 속의 뇌가 아님이 증명되지 않는다. 퍼트남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다. 따라서 퍼트남의 “통 속의 뇌 논증”은 잘못된 논증이다. 그리고 퍼트남이 “통 속의 뇌 논증”을 제시한 이유가 회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회의주의는 여전히 살아 있다.

1) 통 속의 뇌 가설

눈을 뜨고 무언가를 바라보면, 우리 정신에는 어떤 상이 생긴다. 탁자가 있고, 저 멀리 나무가 있다. 우리는 우리 정신에 나타나는 그러한 상이 우리 밖의 세계를 반영한다고 믿는다. 일군의 철학자들은 이에 반대한다. 그들은 우리 정신에 그려진 상과 우리 밖의 세계가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데카르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러한 철학적 입장을 회의주의라고 부른다. 회의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개념을 통해 정식화될 수 있다: 1) 실제적 외부세계 2) 표상적 외부세계. 우선 표상적 외부세계(줄여서 ‘표상세계’)는 우리 정신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이다. 내 앞에는 탁자가 있고, 저 멀리 나무가 있다. 이러한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가 표상적 외부세계이다. 회의주의는 표상적 외부세계 뿐만 아니라 실제적 외부세계(줄여서 ‘실제세계’)도 상정한다. 실제적 외부세계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세계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실제로는 통 속의 뇌이며, 그 뇌와 연결된 슈퍼컴퓨터가 제공하는 전기 자극을 통해, 탁자와 나무를 보고 있다고 믿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통 속의 뇌이지만,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전기자극을 통해, 탁자와 나무를 보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갖는 두 세계, 즉 실제적 외부세계와 표상적 외부세계를 상정함으로써, 회의주의는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한다. 당신이 표상적 외부세계를 벗어나 실제적 외부세계로 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실제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표상세계에 갇혀 있는 존재이므로, 당신의 실제적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당신은 1인칭의 존재이다. 전지적 시점을 갖지 못하는 한, 당신은 당신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우리의 표상세계와 실제세계는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철학적 입장, 이러한 입장을 회의주의라고 한다.

실제적 외부세계와 표상적 외부세계를 구분함으로써 정식화되는 이러한 회의주의적 아이디어는 적어도 데카르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영화 매트릭스도 이러한 아이디어에 기대 그 스토리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퍼트남의 “통 속의 뇌 가설”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퍼트남은 자신의 저서 『이성, 진리, 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뇌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인간(또는 아마도 모든 감각 기능을 가진 생물)이 통 속에 들어있는 두뇌(<감각>이라는 최소한의 신경 조직만 가진 생물의 경우에는 신경 조직)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사악한 과학자는 통 밖에 있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꼭 그렇게 밖에 있어야 할 것인가? 아마도 사악한 과학자란 존재하지도 않고 (좀 무리한 이야기이지만) 우주는 온통 두뇌와 신경 조직으로 가득 찬 통만을 만들어내는 자동 기계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그 자동 기계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연관성 없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환각들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적인 환각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리하여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에게 보일 때, 당신에게는 당신이 나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때 나의 말이 당신의 귀까지 실지로 다 다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실지로 귀가 없고 나에게는 입과 혀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말을 내뱉을 때 정말로 일어나는 일은 나의 두뇌에서 발생한 전기 자극이 컴퓨터로 나가서 나는 나 자신의 음성을 <듣고> 내 혀의 움직임을 <느끼게> 하고 당신은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을 <보게> 함이다. 이 경우 어떤 의미로서는 당신과 나는 실지로 의사 소통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이 정말 존재한다는 나의 생각은 틀릴 수 없다. (이때 당신의 존재란 두뇌와 상관없이 <외부 세계>에 있는 당신 육체의 존재를 말한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전세계>가 하나의 집단적인 환각이라 할지라도 하등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말하고 듣는 기계적 과정이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바와는 다를지라도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때 결국 당신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

이것은 전형적인 회의주의의 입장이다. 퍼트남의 “통 속의 뇌 가설”에는 실제적 세계와 표상적 세계가 동시에 설정되어 있다. 실제적 세계에서 나는 사실 통 속의 뇌이다. 그러나 컴퓨터가 내게 전달해주는 전기 신호 덕에 나는 표상적 세계에 놓여 입과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표상적 세계, 그리고 실제적 세계, 이 두 세계를 구분할 때, 우리는 자칫 표상적 세계가 우리의 믿음 체계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을 읽고 논평을 해 주신 이병덕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선, 퍼트남은 두 세계 즉 ‘표상적 외부세계’와 ‘실제적 외부세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체계 (또는 표상 체계)와 실제세계입니다. 믿음체계 내에서 p 를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p 를 믿는 것이고, p 를 거짓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p 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체계 내의 믿음 p 가 참인지 여부는 믿음체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p 가 실제세계에 성립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통 속의 뇌이든 아니든 정상적 인간이든 회의론 논증에서 우리의 현상세계 (또는 주관적 관점에서의 우리의 믿음체계)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참, 거짓은 현상세계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어떤 믿음 p 가 참이라고 말하는 것은 p 가 실제세계에 관해 참이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두 세계’의 구분을 토대로 한 박 박사의 비판은 퍼트남의 논증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주장이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나는 실제로는 통 속의 뇌이다. 즉, 실제세계에서 나는 통 속의 뇌이다. 그러나 나는 실제 세계에 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실제 모습에 대해 모른다. 이제 전기 자극을 통해 나에게 표상세계가 주어진다. 타자가 있고,

1) 퍼트남, 김효명 역, 『이성, 진리, 역사』, 민음사(2002), 27-28쪽.

저 멀리 나무가 있다. 이것이 퍼트남의 “통 속의 뇌 가설”이 말해주는 바이다. 즉, 퍼트남은 ‘실제세계’, ‘표상세계’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실제세계에서의 통 속의 뇌, 그리고 표상세계에서의 우리들이다. 이제, 이러한 표상세계 내에서 나는 일련의 믿음 체계를 형성한다. 특히, 나는 세월호가 국정원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표상세계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이 믿음이 참이 되는 조건은 여럿일 수 있다. 증거가 나타날 수도, 일관적 정황이 나타날 수도, 국정원 쪽에서 비밀관적인 진술들이 나올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이 믿음의 참, 거짓은 표상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에 의해 결정된다. 이 믿음은 실제세계와 관련해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은 표상세계의 모습이 어떠한지와 관련해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표상세계 그 자체와는 다른 것이다. 표상세계, 그리고 우리의 믿음 체계,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병덕 선생님과 나는 같은 표상세계 내에 있다. 물론 관점에 따른 차이는 있다. 예를 들어 내 앞의 탁자는, 나에게 는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진 대상으로 주어지지만, 저 옆에 있는 이병덕 선생님에게는 마름모의 모양을 가진 대상으로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관점에 따라 달라 보이기 는 하지만, 이 탁자와 관련해 그 어떤 모순도 없다. 한편, 이병덕 선생님과 나는 서로 모순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나가 참이라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 되는 그러한 믿음. 이렇게 모순 없는 표상세계, 그리고 모순이 가능한 믿음 체계들,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

나는 이 세 차원의 구분, 즉 실제세계, 표상세계, 믿음체계, 이 세 차원의 구분이 퍼트남의 “통 속의 뇌 가설”에 동시에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병덕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병덕 선생님의 해석이 옳을 수도 있다. 즉, 퍼트남의 “통 속의 뇌 가설”에는 실제세계와 표상세계(=믿음체계), 이 둘만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퍼트남에 대한 이병덕 선생님의 해석은 옳은 것으로서 오류의 책임을 벗게 된다. 그러나 그 경우 오류의 책임은 퍼트남에게 돌아가게 된다(실제로 나는 오류의 책임이 퍼트남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통 속의 뇌 가설”은 한마디로 퍼트남식 “회의주의”이다. 따라서 만약 이 가설이 논파된다면, 회의주의도 논파된다. 퍼트남은 “통 속의 뇌 가설”이 논파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매우 어리석고도 자명한 것 같아 보이지만(적어도 이론적으로 무장된 몇몇 철학자들의 눈에는) 정말 깊이 있는 철학적 문제로 보다 직접적으로 인도할 질문 하나를 제기하겠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라. 정말 우리가 통 속에 들어 있는 두뇌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사실 나는 우리가 정말로 통 속에 있는 두뇌에 불과하다는 가정이 물리적 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해 온 모든 것과 전혀 모순되지는 않더라도 절대 참이 될 수 없는 가정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왜 그것이 절대 참이 될 수 없는 가정이나 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정이기 때문이다.²⁾

퍼트남은 “통 속의 뇌 가설”이 절대 참이 될 수 없는 가정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퍼트남의 주장이 옳다면, 즉 “통 속의 뇌 가설”이 절대 참이 될 수 없는 가정임이 밝혀진다면, “회의주의”도 절대 참이 될 수 없는 가정이 된다. 그런데 퍼트남의 주장은 뭔가 이상해 보인다. 내가 영화 매트릭스를 보았을 때, 나는 그 영화가 굉장히 그럴 듯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 즉 우리의 표상적 세계는 미래 우리 후손들의 과학적 장난의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나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2) 퍼트남, 『이성, 진리, 역사』, 28-29쪽.

(이 점은 2장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그런데 왜 퍼트남은 “통 속의 뇌 가설”이 절대 참이 될 수 없는 가정이라고 주장하는가? 퍼트남 주장의 핵심은 “통 속의 뇌 가설”이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정”이라는 것이다. 이제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가정이라면, 그리고 “통 속의 뇌 가설”이 정말로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정”이라면, “통 속의 뇌 가설”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정”에 대해 퍼트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정이라 함은 그것이 참이면 또한 거짓도 함축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예컨대 모든 일반적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보자. 이 명제 자체가 일반적인 진술이다. 따라서 그것이 참이라면 또한 거짓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명제는 거짓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때로는 어떤 명제가 거짓을 함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심으로 생각되거나 밖으로 언표될 경우에도 <스스로를 논파한다>고 불린다. 예를 들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나(어떤 <나>라도 좋다)에 의하여 생각되었다면 스스로를 논파하는 격이 된다. 그리하여 (데카르트R. Descartes가 이미 말하였다시피)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한,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밝히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통 속에 들어 있는 두뇌라는 문제의 그 가정이 바로 위에서 말한 그러한 성질을 가진 가정이라는 점이다.³⁾

여기서 퍼트남은 “통 속의 뇌 가설”이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정의 한 예로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들고 있다.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할 경우, 그러한 의심도 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스스로를 논

3) 퍼트남, 『이성, 진리, 역사』, 29-30쪽.

파하는 것이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스스로를 논파하는 주장인 만큼, 그만큼 “통 속의 뇌 가설”도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정이라는 것이 퍼트남의 주장이다. 왜 “통 속의 뇌 가설”이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정인가? 퍼트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일한 논법에 의하여 <통>이라는 말은 통 속 영어로 이미지 속의 통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것(전기 충격이나 프로그램상의 어떤 특징)을 지시하지 실제의 통을 지시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통 속 영어로 <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통과 아무런 인과 관계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두뇌들이 들어있을, 적어도 한 개의 특수한 통은 있어야 할 것이니 이러한 의미에서는 실제의 통과 일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통, 즉 두뇌가 들어있을 통이 만약 없다면 통 속의 두뇌들은 <통>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는 통 속 영어로 된 모든 말의 사용과 그 하나의 특수 통 사이의 관계이지 <통>이라는 개별적인 말의 사용과 실제 통과의 관계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영양액>도 이미지 속의 액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것을 지시할 뿐이다. 따라서 문체의 <가능세계>가 정말 현실 세계로 되어 우리가 실지로 통 속의 두뇌라 한다면 <우리가 통 속의 두뇌>라는 말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미지 속의 통에 들어 있는 두뇌라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지 속의 통에 든 두뇌가 아니라는 점도 우리는 통 속의 두뇌라는 가정의 일부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지금 <환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우리는 통 속의 두뇌라는 사실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통 속의 두뇌라 한다면 <우리는 통 속의 두뇌이다>라는 문장은 거짓이다. 따라서 그 문장은 (필연적으로) 거짓이다.⁴⁾

“통 속의 뇌 가설”이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정이라는 퍼트남 주장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통 속의 뇌라면, <우리는 통 속의 두뇌이다>라는 문장은 필연적으로 거짓이다. 왜냐하면,

4) 퍼트남, 『이성, 진리, 역사』, 40-41쪽.

우리가 통 속의 뇌라면, 우리가 <우리는 통 속의 두뇌이다>라는 문장을 생각하거나 발화할 때, 우리는 <통>이라는 단어로 이미지 상의 통을, <두뇌>라는 단어로 이미지 상의 두뇌만을 지칭할 수 있지, 실제의 통과 두뇌를 지칭함에 있어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통 속의 두뇌이다>라는 문장이 필연적으로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퍼트남 논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통 속의 두뇌이다>라는 문장은 스스로를 논파하는 문장이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통 속의 뇌 가설” 역시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설이다. 그리고 “통 속의 뇌 가설”은 퍼트남식 “회의주의”이므로, “통 속의 뇌 가설”이 논파된다면 “회의주의”도 논파된다.

2) 전체 스토리와 자기 반박적 문장

퍼트남의 논증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시점을 포함하고 있다. “통 속의 뇌 가설” 전체는 전지적 시점(사악한 과학자의 시점)과 1인칭 시점을 동시에 포함한다. 전지적 시점으로 보았을 때, 그 가설에는 통 속에 든 뇌가 있고, 그 뇌에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실제적 외부세계이다. 이제 컴퓨터가 뇌에 전기자극을 줄 때, 1인칭 시점이 형성된다. 그 1인칭 시점을 가진 우리들은 무언가를 보고 듣고, 서로 대화한다. 이것이 표상적 외부세계이다. 퍼트남의 논증은 전지적 시점을 전제하며, 그러한 전지적 시점 하에서 우리는 통 속의 뇌들이다. 퍼트남의 논증은 1인칭 시점도 전제하며, 그러한 1인칭 시점 하에서 우리는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발화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논파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제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정이라는 퍼트남의 주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스토리를 상상해 보자.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 사악한 과학자가 컴퓨터로 우리에게 표상적 외부세계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그 세계에

간혀서, 우리의 실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서로 대화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 그 표상적 외부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논파하는 문장을 발화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스토리를 상상해 보고, 이제 어떤 결론이 주어지는지 살펴보자. 우선 전체 스토리와 그 스토리의 한 요소를 이루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살펴보자. 퍼트남의 말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스스로를 논파하는 문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전체 스토리는 어떠한가? 위에서 말한 전체 스토리가 스스로를 논파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스스로를 논파하는 문장이라고 해서, 위에서 말한 전체 스토리가 스스로를 논파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 만약 위의 문장이 스스로를 논파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전체 스토리도 스스로 논파되는 것이라면, 퍼트남의 저작 『이성, 진리, 역사』도 스스로를 논파하는 책이 된다. 왜냐하면, 그 책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스스로를 논파하는 문장의 예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 책에 이 문장이 쓰여 있다. 물론 전체 스토리에서 누군가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발화하면, 그는 스스로를 논파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스토리의 일부를 차지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스스로를 논파하는 문장이라고 해서, 전체 스토리가 스스로를 논파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다.

이제 퍼트남의 “통 속의 뇌 가설”을 살펴보자. 전체 스토리는 전지적 시점과 1인칭 시점, 이 두 시점을 포함하고 있다. 1인칭 시점에 간혀 있는 우리는, 만약 우리가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을 발화하면, 필연적으로 거짓 발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이 스스로를 논파하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거짓인 그러한 발언이라는 사실로부터 “통 속의 뇌 가설” 전체가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포함하는 그 어떤 스토리도 스스로 논파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그 어떤 스토리도 그 자체만으로는 스스로 논파되지 않는다. 스스로 논파되는 것은,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발화이지, 퍼트남이 제기한 “통 속의 뇌 가설” 전체는 아닌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서, <말도 안 돼!>라고 하지 않고,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리의 느낌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이 점이 퍼트남의 오류이다. 퍼트남은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이 스스로를 논파하는 문장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이것은 인정할 수 있는 주장이다), “통 속의 뇌 가설” 전체가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정이라고 결론 내린다.⁵⁾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이 스스로를 논파하는 문장이라는 사실로부터 “통 속의 뇌 가설” 전체가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정이라는 사실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포함하는 퍼트남의 저작이 스스로를 논파하는 책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결론적으로 “통 속의 뇌 가설”은 일관적이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통 속의 뇌 가설” 전체가 아닌,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일 뿐이다. 이 부분에서 퍼트남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⁶⁾

퍼트남의 주장과는 달리, “통 속의 뇌 가설” 전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영화 매트릭스가 스스로 논파되는 스토리가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퍼트남은 “통 속의 뇌 가설”을 일종의 회의주의로 설정한 다음, 이 가설 전체가 논파된다면 회의주의도 논파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가설 전체가 논파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의주의 역시 논파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퍼트남의 의도와는 달리 말이다. 여기서 오직 문

5) 내가 지금 밝히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통 속에 들어 있는 두뇌라는 문제의 그 가정이 바로 위에서 말한 그러한 성질[스스로를 논파하는 성질]을 가진 가정이라는 점이다.(퍼트남, 『이성, 진리, 역사』, 30쪽.)

6) “사실 나는 우리가 정말로 통 속에 있는 두뇌에 불과하다는 가정이 물리적 범칙에 위배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해 온 모든 것과 전혀 모순되지는 않더라도 절대 참이 될 수 없는 가정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퍼트남, 『이성, 진리, 역사』, 29쪽.)

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일 뿐이다.

“통 속의 뇌 가설” 전체는 일관적이다. 이 가설이 일관적이므로 회의주의도 일관적이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통 속의 뇌 가설” 전체는 온전한 것으로 놓고, 오직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자. 이 문장은 정당하게 주장될 수 있는가? 이 문장의 참, 거짓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회의주의자들의 입장이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은 참이다(사실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문장은 참일 수 있다. 이것이 퍼트남, 그리고 회의주의자, 이 둘의 차이이다. 회의주의자들은 우리가 통 속의 뇌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퍼트남은 이렇게 완곡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통 속의 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가능성은 나의 입장인데, 이 입장에 따르면, (1) 우리가 전지적 시점을 취할 수 있다면,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 가능하지만, (2) 우리가 1인칭 시점만을 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세 번째 가능성은 퍼트남의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이 문장은 필연적으로 거짓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장은 (필연적으로) 참이다. <우리는 통 속의 뇌가 아니다>.

본 논문의 최종 결론과 관련해,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병덕 선생님의 논평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어떤 사람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전혀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이 문장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의론자도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회의론자가 이 회의론 가설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퍼트남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회의론자가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회의적 가설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증 책임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 나는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이 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회의주의자가 이 문장을 발화한다면, 그에게 입증 책임이 돌아갈 것이고, 그는 그 입증에 실패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따라서 첫 번째 가능성은 배제된다. 한편, 퍼트남이 이 문장에 대해 그것이 필연적으로 거짓이라 주장한다면, 그리고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이 문장이 표상세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세계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거짓이라고 주장한다면, 입증 책임은 퍼트남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역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입증의 책임을 다 함에 있어 퍼트남은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세 번째 가능성도 배제된다. 즉, 우리가 실제세계에서 통 속의 뇌일 수 없다는 퍼트남의 주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결론은 간단하다. 나는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이 실제세계에 대해 참이라고도, 거짓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냥 알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자.

3) 시점의 이동

퍼트남은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이 스스로를 논파하는 문장이라는 사실로부터, 이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스토리도 스스로를 논파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서 퍼트남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스토리가 논파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이 스스로를 논파하는 문장이라면, 그래서 필연적으로 거짓인 문장이라면, 우리는 통 속의 뇌가 아닌 것 아닌가?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에 복잡한 사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퍼트남이 “통 속의 뇌 가설”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그는 본인에게 세 번의 시점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첫째, “통 속의 뇌 가설”의 출발점에서

그는 전지적 시점을 가진다. 그는 실제세계와 표상세계 모두를 관찰하며 그 가설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 하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가 통 속의 뇌인지, 아닌지.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 이 가설이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설임을 주장할 때, 퍼트남은 오직 1인칭 시점만을 허용한다. 이러한 시점 하에서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통 속의 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 하에서 확실한 것은, 표상세계에서 우리는 통 속의 뇌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퍼트남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이 자기 반박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다시 시점을 전환한다. 우선 그는 1인칭 시점 하에서, 표상세계에 대해 어떤 사실을 확인한다. 즉 우리가 표상세계에서 통 속의 뇌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그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다시 전지적 시점을 취해, 우리가 실제세계에서도 통 속의 뇌가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이것은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표상세계에 대해 확인된 사실(우리는 통 속의 뇌가 아님)을 실제세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퍼트남은 우리가 1인칭 시점에 고정된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해,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이 필연적으로 거짓인 문장이라고 주장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제세계에서) 통 속의 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이병덕 선생님의 논평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병덕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박 박사에 따르면, 퍼트남은 우리가 1인칭 시점에 고정된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해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이 필연적으로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퍼트남의 논증은 거칠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통 속의 뇌가 아니라면,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회의론자의 주장은 참이 아니다. 반면 우리가 통 속의 뇌라면,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회의론자의 주장은 지칭의 인과적 제약조건 때

문에 그가 의도하는 바의 명제를 표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

지칭의 인과적 제약조건에 따르면, 한 용어는 한 대상을 그 용어와 그 대상 사이에 적절한 인과적 연결이 있는 한에서만 지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통 속의 뇌라면, 우리의 용어 “통 속의 뇌”는 통 속의 뇌를 지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자 사이에 적절한 인과적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퍼트남 논증의 핵심은 지칭의 인과적 제약조건에 있지, 우리가 1인칭 시점에 고정된 존재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칭의 인과적 제약 조건에 근거한 퍼트남의 논증은 “전지적 시점을 허용했다가, 거부했다가, 다시 허용했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논증이 결코 아닙니다.

이 주장에서의 핵심은 지칭의 인과적 제약 조건, 그리고 우리가 1인칭 시점에 고정된 존재라는 것, 이 둘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우리가 1인칭 시점에 고정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전지적 시점을 갖게 된다면, 지칭의 인과적 제약 문제가 발생할까? 만약 우리가 퍼트남의 “통 속의 뇌 가설”에서의 사악한 과학자라면, 그래서 전지적 시점을 가진다면, 내가 ‘통’이라는 단어로 통을, ‘뇌’라는 단어로 뇌를 지칭함에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특히 우리가 1인칭 시점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지칭 실패의 필요, 충분조건이다. 다음의 조건문들이 보여주듯이 말이다.

- (1) -1인칭 시점 고정 → -지칭실패.
- (2) 1인칭 시점 고정 → 지칭실패.

이렇게 퍼트남은 우리가 1인칭 시점에 고정된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해,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이 필연적으로 거짓인 문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인칭 시점만을 허용한다 해도, 우리가 우리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없을 뿐이지, 우리가 통 속의 뇌가 아님이 증명되

는 것은 아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렇지 않음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전지적 시점을 허용해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 경우 우리는 우리가 통 속의 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뿐이지, 통 속의 뇌가 아님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전지적 시점을 허용해도, 혹은 오직 1인칭 시점만을 허용해도,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통 속의 뇌가 아님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전지적 시점을 허용하면, 우리가 통 속의 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뿐이며, 1인칭 시점만을 허용하면, 우리가 통 속의 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뿐이다. 그 어떤 시점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 속의 뇌가 아님이 증명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왜 퍼트남은 우리가 통 속의 뇌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할까?

이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그 이유는, 퍼트남이 잘못된 분석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잘못된 분석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퍼트남은 시점을 이동시키면서, 표상세계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그대로 실제세계에도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이 필연적으로 거짓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 이 문장은 표상세계에 대해 필연적으로 거짓이다 2) 이 문장은 실제세계에 대해 필연적으로 거짓이다. 퍼트남은 시점을 이동시키면서, 표상세계에 대해 확인된 사실, 즉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이 표상세계에서 필연적으로 거짓이라는 사실로부터, 부당하게도 위의 문장이 실제세계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거짓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4) 두 세계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가 필연적으로 거짓인 문장이라고 해 보자. 따라서 이 문장의 부정이 참이다. 즉 필연적으로, 우리는 통 속의 뇌가

아니다. 이것이 퍼트남이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퍼트남의 논증에서 정말로 증명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우리는 표상세계에서 통 속의 뇌가 아니라는 것. 둘째, 우리는 실제세계에서 통 속의 뇌가 아니라는 것. 이 둘 중 어떤 것이 증명되었는가?

퍼트남이 설정해 놓은 “통 속의 뇌 가설”을 살펴보자. 이 가설에는 두 세계, 두 시점이 설정되어 있다. 하나는 실제세계로서, 전지적 시점을 취해야만 이 세계를 관찰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표상세계로서, 이 세계의 거주자들은 1인칭 관점만을 취할 수 있다. 이제 표상적 세계의 거주자인 우리들은 만약 우리가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발화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논파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표상적 세계에 간혀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통 속의 뇌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가 필연적으로 거짓이라면, 그것은 표상적 세계에 대해 그러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실제적 세계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실제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문장은 필연적으로 거짓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1인칭 시점만을 취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실제세계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뿐이며, 우리가 전지적 시점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세계에서 우리는 정말 통 속의 뇌일 수 있는 것이다. 1인칭 시점을 취하든, 전지적 시점을 취하든, 우리가 실제세계에서 통 속의 뇌가 아님이 증명되는 일은 없다.

어쩌면 퍼트남은 우리가 표상세계에서만큼은 정말로 통 속의 뇌가 아님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세계에서 우리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표상세계에서만큼은 통 속의 뇌가 아님을 그가 증명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증명이 왜 필요한가? 표상세계에서 우리가 통 속의 뇌가 아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따라서 그의 의도를 살리고자 한다면, 그가 증명하려고 한 것은 다음과 같

은 것이라고 해야 한다. 즉, 우리가 실제세계에서도 통 속의 뇌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퍼트남의 논증을 살펴보면, 우리가 표상적 세계에서 통 속의 뇌가 아님은 증명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세계에서도 역시 통 속의 뇌가 아님은 증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지적 시점을 취하면, 우리는 실제세계에서 우리가 통 속의 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음으로, 우리가 1인칭 시점만을 취하면, 우리는 표상세계에서 통 속의 뇌일 수 없다. 이 점은 분명하며, 여기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서 멈춘다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퍼트남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다시 전지적 시점을 취해 우리가 실제세계에서도 통 속의 뇌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표상세계에서 확인된 사실을 실제세계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점을 전환해 가면서, 서로 다른 두 세계에 대해, 한 세계에서 확인된 사실을 다른 세계에도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퍼트남의 오류이다.

전지적 시점을 취하면, 실제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거기서 우리는 통 속의 뇌일 수 있다. 1인칭 시점만을 취하면, 우리는 표상세계에서 우리가 통 속의 뇌가 아님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퍼트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표상세계에서 다시 실제세계로 넘어간다. 그러는 동안 그는 표상세계에서 확인된 사실, 즉 우리가 통 속의 뇌가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부당하게 우리가 실제세계에서도 통 속의 뇌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 이 점이 퍼트남의 잘못이다.

결론 : 문제의 근원

퍼트남은 우리가 통 속의 뇌가 아님을 증명하고자 하지만, 그 증명을 위한 논증을 펼침에 있어 실패한다. 그런데 퍼트남은 왜 우리가 통 속의 뇌가 아님을 증명하고자 하는가? 나는 퍼트남이 혼동을 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그리고 이것은 칸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⁷⁾). 퍼트남과 칸트는 우리의 믿음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 출발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차원을 구분하는 것이다. 첫째, 실제세계, 둘째, 표상세계, 셋째, 믿음체계. 퍼트남의 “통 속의 너 가설”이 바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최종 결론을 보면, 실제세계가 빠지고, 오직 두 개의 차원만 남는다. 즉, 표상세계와 믿음 체계. 그리고 이들은 표상세계와 우리 믿음 체계 사이의 관계에 관해, 일종의 안경 이론을 제시한다. 즉, 표상세계와 우리 믿음체계가 대응하는 방식은, 우리 믿음체계가 표상세계를 거울처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체계를 형성하는 개념들에 의해 표상세계가 우리에게 (구부러진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것. 안경을 벗으면, 우리는 세계를 볼 수 없다. 안경을 써야만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안경은 빛을 구부러뜨린다. 그 유비적 안경은 개념들, 인간공동체, 그 공동체의 역사, 이론 등등으로 이해된다. 어쨌든, 이 경우, 우리 믿음 체계와 세계의 관계는, 믿음체계-실제세계가 아니라, 믿음체계-표상세계이다. 출발은 세 차원의 구별이었는데, 그 끝은 두 차원의 관계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류임에는 분명하다.⁸⁾ 나

7)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칸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 밖’ 혹은 ‘외재적’이라는 문구는 실제로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미 중 칸트가 ‘초월적’ 의미라고 부르는 그러한 의미와 관련해 [...] 칸트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 것, 즉 공간을 차지하는 사물들 things to be met with in space은 이러한 의미에서[초월적 의미에서] ‘외재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악명 높다. [...] 만약 ‘외재적’이라는 문구가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면, 그렇다면 “두 마리의 개가 존재한다”라는 명제로부터, 어떤 [초월적으로] 외재적 사물이 있다는 명제는 따라 나오지 않는다. [...] 그러나 다른 의미, 즉 칸트에 따르면 ‘외재적’이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의미, 칸트가 ‘경험적으로 외재적 인’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의미에서의 외재성은 어떠한가?(Moore, G. E., Baldwin, T(ed)(2013), 159쪽.)

8) “내가 옹호하게 될 관점은 이름 짓기가 애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관점은 철학사에서 최근에 도달한 것이며, 오늘날에도 그것은 그것과는 꽤 다른 종류의 관점들과 계속 혼동되고 있다. 나는 이 관점은 내재적(internalist) 관점이라고 부르게

는 실제세계의 가능성, 즉 우리가 실제로 통 속의 뇌일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우리는 그 세계에 대해 그냥 모르는 것이다. 영화에서처럼 약을 먹어 실제세계로 가면 전지적 시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모습을인지. 그러나 표상세계에 갇혀 있는 동안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실제로 통 속의 뇌가 아님은 증명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회의론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론 문제와 우리 믿음체계의 안정성 문제는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 믿음체계의 안정성 문제는, 실제세계가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표상세계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 믿음체계의 안정성 문제를 따질 경우, 우리는 오직 표상세계만을 대상으로 탐구해야지, 실제세계에 대해 무언가를 얻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나는 우리가 실제세계를 상정하지 않고, 오직 표상세계만 상정하더라도, 우리의 인식적 삶과 도덕적 삶에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표상세계에서 저기 갈색의 탁자가 보이면, 나는 “저 탁자는 갈색이다”라는 믿음을 정상적으로 형성한다. 표상세계에서 어떤 여자가 가는 장소마다 자꾸 번기를 바꾼다면, 나는 “저 여자는 미쳤다”라는 믿음을 정상적으로 형성한다. 실제세계(거기서 그녀는 통 속의 뇌이다)가 나의 믿음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나의 정상적 인식 상태는 표상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에 의해, 그 믿음이 정당화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이다. 도덕적 삶도 마찬가지이다. 신상규 선생의 논문에서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인격성이나 도덕성과 같은 가치들은 매트릭스 내부에서

될 텐데, 그 이유는 어떤 대상들로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가는 어떤 이론 또는 기술 내에서만 의미 있는 물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이 관점의 특징이기 때문이다.(Putnam, 1981, 49쪽)”, 이상원, “내재적 실재론과 비실재론”, 『철학논집』, 2013, 225쪽에서 재인용.

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이며, 매트릭스의 가상성은 그러한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다.]”⁹⁾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도덕적 삶 역시 실제 세계가 어떠한가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표상세계가 어떠한가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데 있어, 또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꾸려 가는데 있어, 실제세계라는 무언가를 상정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그러한 실제세계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이 철학적으로 탐구되는 것은 옳지만 말이다. 결론은 이렇다. 실제세계, 표상세계, 믿음체계, 이 세 차원을 구분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우리 믿음체계의 안정성, 우리의 도덕적 삶 등과 관련해서는 오직 표상세계만을 상정해야지, 실제세계를 개입시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회의주의의 구도, 그리고 인식의 정당성 문제(여기에는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도 포함되겠다), 이 둘을 혼동함으로써, 퍼트남은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퍼트남의 통 속의 뇌 논증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통 속의 뇌 가설”은 스스로를 논파하는 가설이 아니다. 그것은 일관된 스토리이다. 그런데 “통 속의 뇌 가설”은 회의주의라는 철학적 입장이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 스토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통 속의 뇌 가설”이 논파된다면, 회의주의도 논파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처럼, “통 속의 뇌 가설”은 일관된 스토리이며, 따라서 논파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회의주의는 여전히 살아 있다.

9) 신상규, “우리가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다면”, 『헤겔연구』, 2006, 268쪽.

참고문헌

- 신상규, “우리가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다면”, 『헤겔연구』, 2006.
이상원, “내재적 실재론과 비실재론”, 『철학논집』, 2013.
퍼트남, 김효명 역, 『이성, 진리, 역사』, 민음사, 2002.
Moore, G. E., Baldwin, T(ed), *G.E. Moore: Selected Writings*, Routledge, 2013.

A critic of the Putnam's brain-in-a-vat argument

Jechul BAK (University of Seoul)

In this paper, I intend to show that Putnam's "brain-in-a-vat argument" is a false argument. The key i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real world, the representational world, our belief system. Putnam is making the mistake of applying the conclusions he has gained about the representational world to the real world. It is the final conclusion of this paper that such mistakes lead to misunderstanding that Putnam survives skepticism.

Key words: Putnam, Brain in a vat argument, Scepticism, Reality, Phenomenon, Belief system

박제철 e-mail: jechull@naver.com

투 고 일	2018년 04월 15일
심 사 일	2018년 04월 30일
게재확정	2018년 05월 17일